

광주이씨 李元禎家の 장서인과 장서기 연구*

손 계 영**

- I. 머리말
- II. 이원정가 장서인 분석
- III. 이원정가 장서기 분석
- IV. 이원정가 인물별 장서관리 특징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이원정 후손가 장서의 장서인과 장서기를 분석한 논문이다. 이원정 후손가 석전문고 746종 가운데 136종의 장서에 장서인 또는 장서기가 있어 어느 시기에 어떤 인물이 소장하였던 장서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장서는 17세기 남인 영남학과 인물인 이원정의 장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원정은 14종 이상의 장서인을 소장하였고, 이원정의 장서인과 장서기가 있는 현존본은 101종으로 확인되었다. 17세기 이원정 장서목록에 수록한 장서량과 비교하면 석전문고에는 이원정 장서의 약 37%가 현재까지 보

* 본 연구는 2021년 대구가톨릭대학교 연구년 중 수행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 sonkey@cu.ac.kr

존되어 있다. 그는 자신의 장서 대부분에 장서인을 날인할 정도로 장서인 애호가였다. 둘째, 1656년부터 1678년의 이원정 내사본 6종을 통해 이원정이 사용하였던 장서인의 종류를 시기에 따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장서인의 종류에 따라 이원정이 서책을 소장하였던 시기를 유추할 수 있었다. 셋째, 이원정의 장남 이담명은 장서인의 날인보다는 서책의 빈 공간에 입수경위 등 장서기를 기록하였고, 자신의 장서목록을 작성하는 등 장서관리에 적극적이었다. 광주이씨 이원정가 중요 서책들은 장서인과 장서기를 통해 17세기 이원정·이담명 부자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에는 이담명의 현손 이태운이 5종 이상의 장서인을 소장하였고, 그의 아들 이이풍과 손자 이조연은 『보망록』이란 장서목록을 작성하여 장서 점검과 대출 현황을 기록하여 19세기까지 3대에 걸쳐 집안 장서 관리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다.

◆ 주제어

장서인, 장서기, 광주이씨, 석전문고, 이원정(1622~1680), 이담명(1646~1701), 이태운(1744~1789)

I. 머리말

경북 칠곡 석전리 광주이씨 이원정가는 李潤雨(1569~1634), 李道長(1603~1644), 李元禎(1622~1680), 李聘命(1646~1701) 등 4대가 문과에 급제한 영남지역의 명문세가이며, 인조 대부터 숙종 대까지 영남 남인 정치의 중심에 서 있던 집안이다. 칠곡 석전은 이원정의 3대조 李光復이 옮겨와 정착하였던 지역으로, 과거 돌이 많아 ‘돌밭’이라 불렸으며, 한자로 ‘石田’이라 하였다. 이원정은 1670년대 석전의 동쪽에 위치한 귀바위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였고, 이곳이 현재 이원정 후손가 귀암종택이 있는 곳이다.

이원정은 자 士徵, 호 歸巖이고 장현광의 학문적 영향을 받았다. 1648년(인조 26) 사마시, 1652년(효종 3)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문과 급제 이후 중앙 정계로 진출하여 이조판서까지 역임한 인물이다. 현종과 숙종 대의 예송 과정에서 남인의 중심 인물로 구심점 역할을 하였으나 서인과 남인의 갈등 구조 속에서 1680년 경신환국 때 목숨을 잃었다. 그의 아들 이담명은 자 耳老, 호 靜齋이며 미수 허목의 문인이다. 1666년 생원시, 1670년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참의, 홍주목사 등을 역임하였으나 1680년 경신환국으로 파직되었다. 그는 이원정의 피 묻은 적삼을 10년간 입고 있을 만큼 부친의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1689년 기사환국 이후 숙종의 사과와 이원정의 신원을 받아내었다. 1690년 경상도관찰사로 재직하였으며, 이후에는 여러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대부분 나아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원정·이담명 부자는 현종·숙종대에 최고의 정치적 위상을 차지함과 동시에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였던 인물이었다. 이후 후손들은 중앙 정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으나 석전 종가를 중심으로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오고 있다.

광주이씨 이원정가에 전래되었던 고서는 1970년대 문화재 도난 사건과 환수 과정 이후에 효성여대(현재 대구가톨릭대)에 기증되었고, 고문서와 유물·목판 등은 2000년 이후 서울역사박물관에 기증되었다. 당시 효성여대에 기증된 광주이씨 이원정가 고서는 현재 대구가톨릭대 중앙

도서관 고문헌실에 ‘석전문고’라는 컬렉션명으로 전체 746종 2,918책이 등록되어 있다. 등록된 고문헌은 『석전문고 목록』으로 간행되어 공개되었으며, 일부 중요 자료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문이미지로 제공되고 있다.¹⁾ 이외에도 17~19세기에 작성된 이원정가 장서목록 3종과 이윤우부터 이도장·이원정·이이풍·이조수·이상석에 이르는 문집 필사본이 계명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원정 장서인이 날인된 고서 일부가 고려대 도서관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원정가 전래 장서목록 3종 가운데 2종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장서목록은 1670년 이전 이원정이 작성한 것으로 그가 소장하였던 장서 276종 1,562책이 수록된 것이다.²⁾ 두 번째 장서목록은 1670년 이후 이담명의 장서 재정리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1690년대까지 이담명에 의해 상당량의 장서가 추가·증보되어 407종 2,658책을 소장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³⁾ 이원정·이담명 부자의 장서목록은 단순한 서책 리스트에 불과하지만, 17세기에 작성된 장서목록이 다행히 현재까지 전해져 이원정·이담명 부자가 소장하였던 장서의 대략적 구성과 형태를 유추할 수 있다.

이원정·이담명 장서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현존본 가운데 이들의 장서인 또는 장서기를 찾는 것이다. 현재 대구가톨릭대 광주이씨 석전문고본을 조사한 결과, 누군가의 장서인이 찍혀 있거나 장서기가 작성되어 있는 사례가 전체 18%에 해당되는 136종에서 확인되고 있다. 장서인 印文 판독을 통해 해당 책의 주인인 冊主를 찾을 수 있으며, 장서기 내용 분석을 통해 장서기 작성자와 책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석전문고본 136종에 있는 장서인과 장서기를 판독하고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광주이씨 이원정가 인물들의 장서관리를

1) 손계영, 「17세기 이원정(1622~1680)의 장서목록과 장서구성」, 『서지학연구』 88, 한국서지학회, 2021, 54~55쪽.

2) 손계영, 앞의 논문, 56~65쪽.

3) 김영진, 「조선후기 私家 藏書目錄에 대한 일고」, 『한국한문학회연구』 77, 한국한문학회, 2020, 469~505쪽.

위한 노력의 실체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 이원정가 장서인 분석

석전문고 746종 가운데 장서인이 있는 서책은 121종이며, 해당 서책에 날인된 장서인의 인문을 분석한 결과 11종 이상의 인물이 확인된다. 확인된 인물별 장서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원정 장서인

석전문고본 가운데 이원정의 것이 확실한 장서인이 날인된 서책은 94종이며, 이원정의 것으로 추정되는 장서인이 날인된 경우까지 포함하면 104종이 확인된다. 104종의 서책에 날인된 이원정 장서인의 종류는 모두 14종으로, 그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그의 장서인을 인문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姓名印, 貫鄉印, 號印, 自稱印, 自警印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이원정의 姓名과 字가 들어간 성명인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A1 ‘李元禎甫’, A2 ‘元禎士徵’, A3 ‘李元禎氏’ 등 3종이 확인된다. A1과 A3에는 이원정의 성명이 들어간 반면, A2는 그의 이름 ‘원정’과 그의 자 ‘사장’이 들어간 장서인이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된 사례는 A1과 A2로, A1의 경우 55종의 장서에, A2의 경우 38종의 장서에 날인되었다.

두 번째 유형은 <표 2>의 관향인이다. 이는 이원정의 본관인 ‘廣州’ 또는 광주의 다른 표현인 ‘廣陵’이 들어간 장서인으로 B1 ‘廣陵後人’, B2 ‘廣州李氏’ 등 2종이 확인된다. 전자는 47종의 장서에, 후자는 51종의 장서에 날인되었다. 관향인과 성명인은 서로 세트로 날인된 경우가 많았는데, A1(李元禎甫)과 B1(廣陵後人)이 같이 사용되었고, A2(元禎士

徵)와 B2(廣州李氏)가 한 세트로 날인되었다.

표 1. 이원정 성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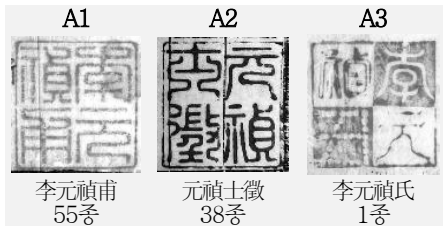


표 2. 이원정 관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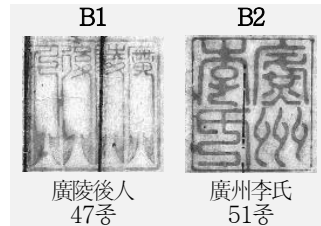


표 3. 이원정 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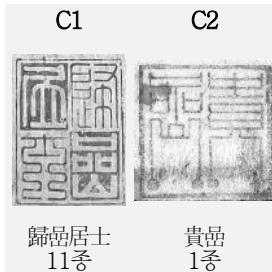


표 4. 이원정 자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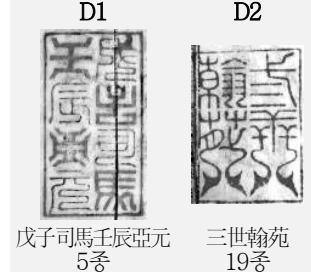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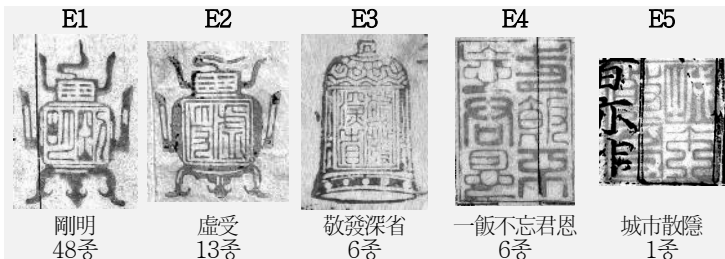


표 5. 이원정 자경인



세 번째 유형은 이원정의 호 ‘歸巖’이 들어간 호인이며, <표 3>과 같이 C1의 ‘歸岳居士’와 C2의 ‘貴岳’ 2종이 확인된다. C2의 경우에는 ‘귀할 貴’자를 사용하였으나 이원정의 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원정의 장서인에 포함하였다. 호인이 찍인 장서는 그리 많지 않았는데, C1

이 날인된 장서가 11종이었고 C2가 날인된 경우는 1종뿐이었다.

이원정 장서인의 네 번째 유형은 장서인에 자신을 지칭하는 글자를 넣은 장서인이다. 이를 자칭인이라 표현하였으며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표 5>와 같이 2종류가 있다. D1에는 ‘戊子司馬壬辰亞元’ 8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무자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임진년에 문과(아원)에 장원한 이를 의미한다. 즉 1648년(무자) 식년시 생원에 합격하고 1652년(임진)에 증광시 甲科 2위에 합격한 이원정의 인장임을 지칭하는 것이다. 해당 장서인이 날인된 서책은 그리 많지 않았으며 석전문고에는 5종의 서책에서만 확인된다.

D2는 ‘三世翰苑’ 4글자가 새겨진 장서인으로 19종의 서책에 날인되어 있다. ‘삼세한원’은 이원정의 조부 이윤우, 부친 이도장, 그리고 이원정까지 3대가 翰苑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李宜翼이 작성한 이원정 謚狀에 ‘삼세한원’이 언급되었다. 그는 이원정에 대해 “1656년 가을에 史局에 뽑혀 들어와 翰林이 되었다. 石潭公과 洛村公으로부터 할아버지·아들·손자 三世를 연이어 翰苑에서 붓을 잡았으니 세상에 드문 일이다.”라고 표현하였다.⁴⁾ 조부 이윤우는 1610년 7월에 예문관 검열이 되었으며, 그의 輓詞에는 “40세에 비로소 벼슬을 하여 銀臺와 翰苑에서 直筆로 간악한 자들을 벌하였다.”고 하였다.⁵⁾ 이원정의 부친 이도장은 1636년에 승정원 주서로 활동하였으며 이도장 祭文에는 그가 “玉堂에 몸을 담자 사악한 자들이 마음을 졸였고, 翰苑에 들어가서는 鈇鉞이 삼엄하였다.”고 하였다.⁶⁾ 이윤우·이도장에 이어 이원정까지 1656년 예문관 검열로 활동하였기에 D2 장서인의 문구는 3대가 연이어 승정원과 예문관에서 직필하였다는 자부심을 강조한 것이다.

이원정 장서인의 다섯 번째 유형은 스스로를 경계하는 문구 또는 자신에게 절실한 문구를 새긴 장서인으로 自警印 5종이다. E1과 E2의 형

4) 李宜翼, 「謚狀」, 『歸巖集』 附錄. “(丙申) 秋選入史局爲翰林 自石潭洛村公 仍祖子孫三世珥筆翰苑 世罕有也.”

5) 李心弘, 「輓詞」, 『石潭集』 附錄. “四十乃始仕 銀臺與翰苑 直筆誅奸宄.”

6) 李斗鎭, 「祭文」, 『洛村集』 附錄. “乃盛玉堂. 羣邪寒心. 乃置翰苑. 鈇鉞森嚴”

태는 인장의 머리 부분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다리가 셋 달린 솔모양의 鼎形이며, 솔의 윗부분에는 『周易』 64괘 중 하나인 巽卦(≡)와 離卦(≡)가 합쳐진 鼎卦가 그려져 있다. E1의 솔모양 중앙에는 ‘剛明’ 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강직하고 명철함을 뜻한다. 『주역』에서는 주로 강명하고 과단성 있는 덕을 가진 군자를 형용하거나 유약한 임금을 보필하여 도를 행하는 강명한 신하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였다. E2의 솔모양 중앙에는 ‘虛受’ 두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는 『주역』 咸卦의 象에 “군자는 마음을 비우고서 남의 말을 받아들인다[君子以虛受人]”는 문장에서 인용한 것이며,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남의 의견을 듣는 태도가 갖춰져야 한다는 문구로 해석된다.

E3은 종모양에 ‘敬發深省’이 새겨진 鐘形印이다. ‘敬發’은 공경하는 마음이 절로 일어나는 것을 뜻하고, ‘深省’은 깊은 성찰 또는 깨달음을 뜻한다. ‘深省’은 杜甫의 「游龍門奉先寺」에 “잠을 깨려다가 새벽 종소리 들으니,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깨달음 얻게 하네[欲覺聞晨鐘，令人發深省].”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敬’은 유학에서 강조되는 개념으로, 학문과 생활 속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도덕적 정신으로 제시되어 왔다. 특히 退溪 李滉은 학문과 수양에 있어 ‘경’을 무엇보다 중시했다. 그는 생각과 배움을 겸하고 動靜을 일관하는 道가 바로 ‘敬’이라 하여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이 마음을 보존하여 성찰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⁷⁾ 이는 聖門의 공부를 하기를 바라는 뜻을 담은 宣祖에게 올린 『聖學十圖』 서문의 핵심적 내용으로, ‘경발심성’ 역시 퇴계로부터 계승된 학문과 수양의 자세를 새긴 것으로 이해된다. E1~E3은 솔·종과 같은 기물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서인계 인장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17세기 초반 서인계 인장 중 이와 같은 기물 형태로 제작된 인장에는 대부분 字나 號 또는 관향이 새겨져 있다고 하였다.⁸⁾ 이에 반해 이

7) 李滉, 「進聖學十圖筭」, 『退溪集』 권7. “持敬者 又所以兼思學 貫動靜 合內外 一顯微之道也 其爲之之法 必也存此心於齋莊靜一之中 窮此理於學問思辨之際 不睹不聞之前 所以戒懼者愈嚴愈敬 隱微幽獨之處 所以省察者愈精愈密.”

8) 성인근, 「16-17세기 안동김씨 印風의 형성과 전개」, 『서예학연구』 39, 한국서예학

원정 장서인에는 자경 또는 좌우명으로 삼을만한 고전 명구가 새겨져 있어 다른 양태를 보인다.

E4는 ‘一飯不忘君恩’ 6글자가 새겨진 장방형 인장이다. 이 문구는 송나라 문인 羅璧의 「識遺」에 “두보의 시는 밥 한끼 먹을 때에도 임금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시를 詩史라 칭한 것이다[杜詩一飯不忘君 所以詩稱史]”에서 유래되었다. 해당 장서인은 이원정의 내사본 6종에만 날인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한 끼 식사 때에도 내사본을 하사한 임금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는 이원정의 충정이 표현된 것이다. E5는 ‘城市散隱’ 4글자가 새겨진 정방형 인장이다. 鄭希良이 자신의 호를 ‘散隱’으로 지은 내력을 풀이한 「散隱說」에서는 숨는다는 것은 세상을 도피하여 산다는 것이라 하며 市城에 숨은 것을 大隱이라 칭하고 山林에 숨은 것을 小隱이라 하였다.⁹⁾ E5의 문구는 시가에 숨어사는 은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장서인이 날인된 사례는 1종뿐이라 정확한 印主를 찾기 어려우나, 해당 서책에 E5뿐만 아니라 A1(李元禎甫), D2(三世翰苑), E3(敬發深省), C1(歸岳居士)이 함께 날인되어 있어 이원정의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원정 후손 장서인

석전문고에는 이원정의 장서인이 날인된 서책의 비중이 많으나, 이원정 후손의 장서인이 찍힌 사례도 일부 확인된다. 우선 이원정의 아들 이담명의 장서인은 『經史集說』과 이담명이 사용하였던 1670년 冊曆에서 F ‘李聘命印’이 확인된다. 이담명의 아들 李世琛(1671~1731)의 장서인은 그의 名·字가 새겨진 G ‘世琛美完’이 3종의 서책에 날인되어 있었다

회, 2021, 138쪽 참조.

9) 鄭希良, 「散隱說」, 『續東文選』 권17, “隱者何 隱於世者也 隱於世者 不于城市則必山林 山林之隱 隱之小者 城市之隱 隱之大者 山林也城市也 猶不離於世 故皆不可謂之隱 若隱於散者 則誰得尋其迹索其形哉 隱而寓諸散可也 余之以散名其隱 盖取莊子散木之散也.”

(표 6 참조). 이와 같이 이담명·이세침 부자의 경우 장서인 사용이 상당히 절제되어 있었으며, 이세침의 아들 李大中(1697~1754)과 손자 李東陽(1723~1746)의 장서인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12대 이담명부터 15대 이동양의 장서인이 많지 않은 반면, 이세침의 증손 李泰運(1744~1789)의 경우에는 5종의 장서인이 확인된다. H1은 ‘廣陵後人’이 음각으로 새겨진 관향인이고, H2는 ‘李泰運印’이 양각으로 들어간 성명인이다. H3은 그의 자 ‘來初’가 새겨진 자인이며, H4는 호 ‘石溪’가 포함된 ‘石溪散拙’이 새겨진 호인이다. 마지막 H5는 성명과 자가 함께 들어간 ‘李泰運來初之印章’ 8글자를 위와 아래 두 칸으로 나눠 포치한 장서인이다. 이와 같이 이태운은 다양한 장서인을 소장하고 있었으나, 그의 장서인이 날인된 서책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표 7 참조).

표 6. 이담명·이세침 장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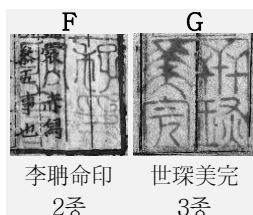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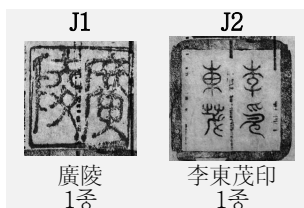
표 7. 이태운 장서인



표 8. 이유중 장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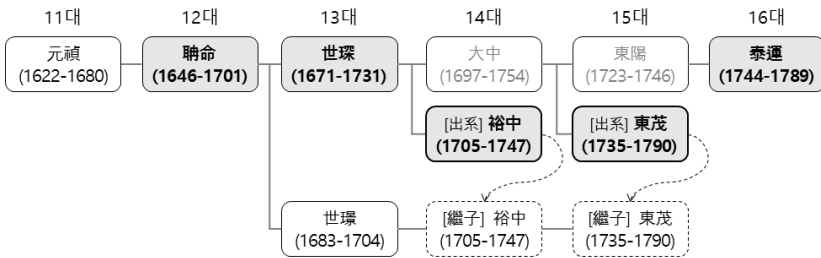
표 9. 이동무 장서인



이외에도 이세침의 둘째 아들이자 아우 李世璟(1683~1704)에게 출계한 李裕中(1705~1747)의 장서인 3종이 서책 2종에 날인되어 있으며,

이대중의 둘째 아들이자 이유중에게 출계한 李東茂(1735~1790)의 장서인 2종이 1종의 서책에 날인되어 있다. 전자인 이유중 장서인은 I1 ‘廣陵’이 새겨진 관향인, I2 ‘李裕中’이 새겨진 성명인, I3 그의 자 ‘聖寬’이 새겨진 자인 등이 있다(표 8). 또한 이유중 繼後子인 이동무의 장서인으로는 J1 ‘광릉’의 관향인, J2 ‘李東茂印’이 새겨진 성명인 등이 있다(표 9). 이유중·이동무 장서인의 특징은 인장 글씨가 미수 허목의 篆書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며, 특히 이유중 I2(李裕中)와 I3(聖寬)은 전형적인 미수전에 해당되는 장서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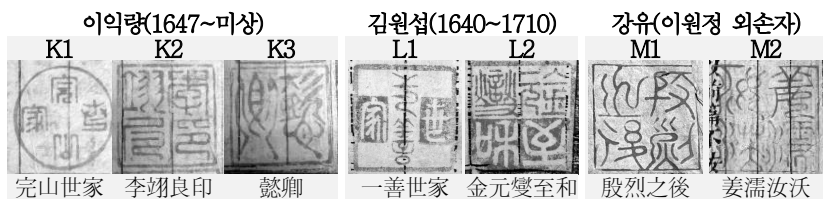
그림 1. 이원정부터 이태운까지의 가계도



3. 타성 인물 장서인

석전문고에는 광주이씨 이원정과 그의 후손 인물들의 장서인 이외에도 타문중의 장서인도 극히 일부 확인되고 있다. 타문중 인물로 분류한 장서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다. 첫째, 장서인 인문이 판독되고 印主의 성명과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로 3인의 인물이 확인된다(표 10). 둘째, 인문이 판독되고 인주의 성명이 확인되지만 해당 인물의 상세한 정보는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이며 2인의 인물이 확인된다(표 11). 마지막은 인문 판독이 어렵거나 인주의 성명조차 알 수 없는 경우로 장서인 3건이 해당된다(표 12).

표 10. 이익량·김원섭·강유 장서인



인문이 판독되어 인주의 성명과 정보가 정확하게 확인되는 3인의 인물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장서인의 주인공은 李翊良이다. 그의 장서인은 『周易本義啓蒙翼傳』 中下篇에 3종 날인되어 있다. K1은 ‘完山世家’가 새겨진 관향인이며, K2는 ‘李翊良印’이 새겨진 성명인이고, K3은 그의 자 ‘懿卿’이 새겨진 자인이다. 이익량은 李萬英의 아들로 1647년에 태어나 1681년(숙종 7) 식년시 생원에 합격하였다. 1695년(숙종 21)에는 수원에 새로 세운 송시열 서원에 恩額을 선사해 줄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던 서인계 인물로 확인된다.¹⁰⁾ 그의 책이 이원정 후손가에 전래된 사유는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두 번째 장서인의 주인은 金元燮(1640~1710)이며, 『退溪先生文集』에 2종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L1은 ‘一善世家’가 새겨진 관향인이고, K2는 그의 성명 ‘김원섭’과 자 ‘至和’가 새겨진 성명자인이다. 김원섭의 본관은 선산이며 한성우윤 金廈樑의 아들이다. 1672년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에 들어갔으나 1680년 경신대출척으로 관직에서 쫓겨났고, 1689년 기사환국으로 재등용되어 사헌부·사간원·홍문관 등 주요 요직을 거쳐 대사간을 역임한 인물이다. 광주이씨 이원정가와 선산김씨는 혼맥과 인맥이 있는 관계이다. 이원정의 4대조 李遵慶이 김원섭의 5대조 金就器의 형 眞樂堂 金就成의 딸과 혼인하였다(그림 2 참조). 또한 1690년(숙종 16) 홍문관 부제학으로 있었던 이담명이 홍문관 교리·수찬의 선

10) 『숙종실록』 숙종 21년 7월 13일, “生員李翊良等上疏 請於水原地宋時烈新建書院 宣賜恩額 上下該曹 該曹請許之 上可之”

거과 임명에 김원섭을 포함한 17인을 뽑았다는 기록이 있어 이담명과 혼맥·인맥으로 엮힌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¹¹⁾

그림 2. 광주이씨와 책주 김원섭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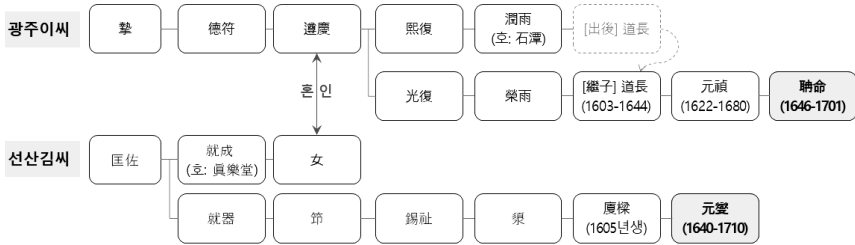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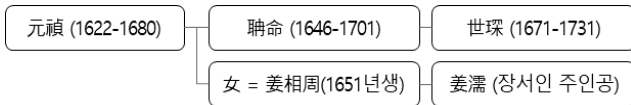


그림 3. 광주이씨와 책주 강유와의 관계



세 번째 장서인 주인은 姜濡이다. 『朱子遺書』에 날인된 그의 장서인 M1은 ‘殷烈之後’를 새긴 인장이고, M2는 자신의 성명과 자를 넣어 ‘姜濡汝沃’을 새긴 성명자인이다. 강유는 이담명의 생질이며 자는 여옥이다. 이담명 누이와 병조좌랑 姜相周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다(그림 3 참조). 강상주는 1651년에 태어나 1675년 식년문과에 합격하였고 병조좌랑과 군수를 역임하였다. 강유의 장서인 중 M1 ‘은렬지후’의 의미는 자신이 진주강씨 殷烈公 姜民瞻(963~1021) 장군의 후손임을 표현한 것이다.

11) 『숙종실록』 숙종 16년 6월 15일. “副提學李聃命等 爲弘文錄 取權重經金元燮尹鼎和 柳栽柳憲章宋儒龍許頴李浚成羅學川李宇晉趙湜李寅燁沈仲良沈最良李東根洪塾等十七人”

표 11. 김덕진·정치술 장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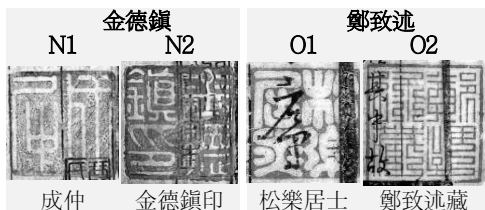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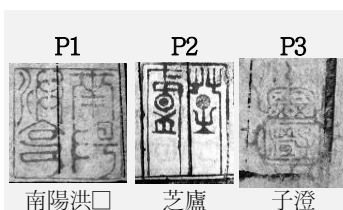


표 12. 印主 미상의 장서인



다음은 인문 판독이 가능하고 인주 성명이 확인되지만 해당 인물의 상세한 정보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첫 번째는 중국본 『文選』에 날인된 金德鎭의 장서인 2종이다. <표 11>의 N1은 김덕진의 자 ‘成仲’이 새겨진 자인이고, N2는 그의 성명이 새겨진 ‘金德鎭印’이다. 두 번째는 『生六臣先生集』에 날인된 鄭致述의 장서인 2종이다. <표 11>의 O1은 정치술의 호를 새긴 ‘松樂居士’이고, O2는 그의 성명이 새겨진 ‘鄭致述藏’이다. 마지막은 인문 판독이 어렵거나 인주의 성명조차 알 수 없는 경우이며, 3종의 서책에서 3종의 장서인이 확인되고 있다. 첫 번째는 『魯史零言』에 날인된 P1(南陽洪□)이고, 두 번째는 『訂窩先生文集』에 날인된 P2(芝廬)이다. 마지막은 『伊洛淵源錄新增』에 찍혀있는 鼎形의 P3(子澄)이다. 인주의 성명과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이들 장서인은 광주이씨 장서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거나 유추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Ⅲ. 이원정가 장서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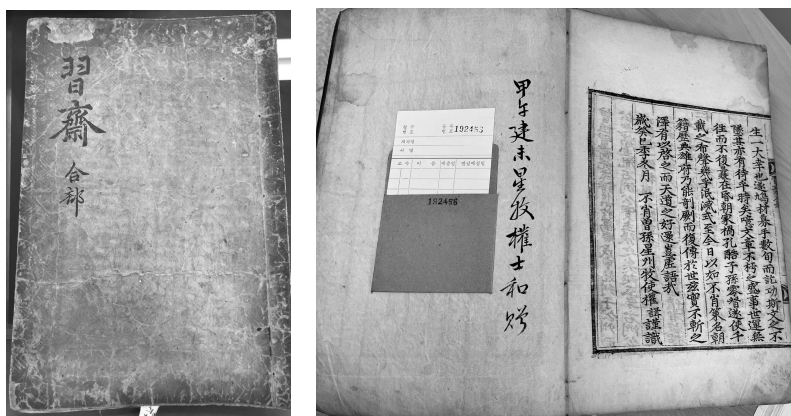
장서기는 서책을 소유하게 된 경위나 사유 등을 메모 방식으로 간략하게 기록한 것을 말한다. 주로 해당 서책의 앞뒤 빈 공간에 책의 입수 시기, 입수 경로, 입수 내력 등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때문에 장서기를 통해 해당 서책이 간행되거나 유통되었던 시기를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고, 어떤 인물이 이용하였던 책인지를 알 수 있기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원정 후손가 전래 장서 746종 가운데 장서기가 있는 사례는 많지 않다. 주로 책의 앞면지 또는 뒷면지에 기록된 장서기 6건이 확인된다. 해당 장서기에는 광주이씨 어떤 인물이 작성한 것인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장서기 작성자, 즉 책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장서기 작성자를 분석한 결과 4명인 것으로 확인되며, 작성자별로 장서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원정 장서기

그림 4. 이원정 장서기 사례 (『습재선생시집』 뒷면지, 1654년 장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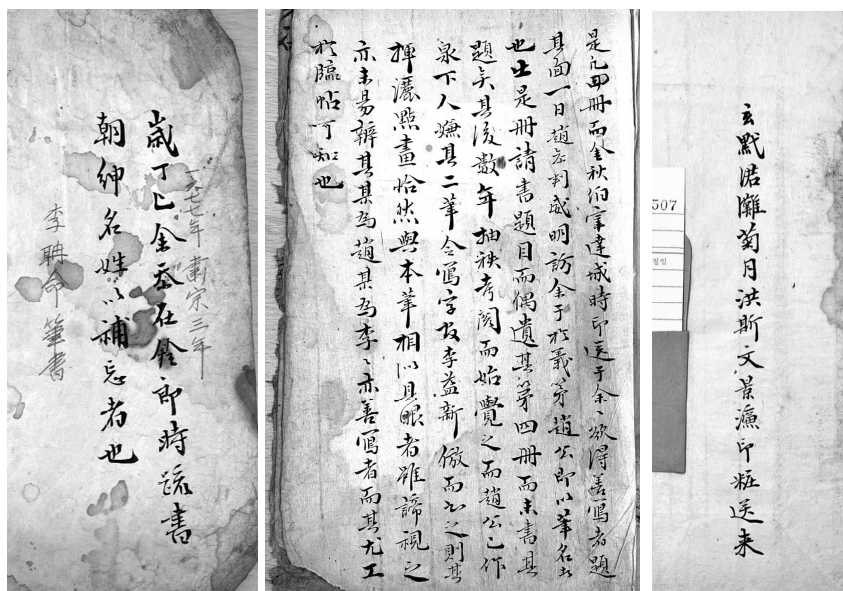
귀암 이원정이 장서기를 기록한 서책으로는 權擘(1520~1593)의 『習齋先生詩集』이며, 해당 서책의 뒷면지에 ‘갑오 건미, 성주목사 權士和가 주다.’라고 소장 경위를 기록하였다.¹²⁾ 이때 ‘갑오년 건미’는 책이 간행된 직후인 1654년 6월을 의미하며, 성주목사 권사화는 1654년 당시 성

12) 李元禎, 藏書記, 『習齋先生詩集』(석전문고본), “甲午建未 星牧權士和贈”

주목사였던 權諝(1600~1681)을 가리킨다. 권집의 본관은 安東, 자는 士和이며,¹³⁾ 『습재선생시집』의 저자 권벽의 증손자이다. 권집은 1624년 진사시, 1639년 문과에 급제하였고, 1652년 성주목사로 부임 후 1653년 자신의 발문을 붙여 증조부의 문집을 성주목에서 간행하였다.¹⁴⁾ 문집 간행 이듬해 성주에 거주하였던 이원정에게 기증하였다. 『습재선생시집』에 작성된 장서기는 1654년 6월에 당시 30대 초반이던 이원정이 작성한 것이며, 해당 서책은 이원정 소장본임을 의미한다.

2. 이담명 장서기

그림 5. 광주이씨 전래 장서 중 이담명 장서기 사례



(a) 『문신좌목』 앞면지
(1677년 장서기)

(b) 『신각소판교정고본당시고취』 뒷면지
(1685년 이후 장서기)

(c) 『하의유고』 뒷면지
(1692년 장서기)

13) 趙持謙, 「鍾城府使權公墓碣銘」, 『迂齋集』 권8.

14) 權諝, 「跋文」, 『習齋先生詩集』, “歲癸巳(1653)季冬月 不肖曾孫星州牧使權諝謹識”

이원정의 장남 이담명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장서기는 모두 3건이며, 장서기가 수록되어 있는 서책은 『文臣座目』(필사본), 『新刻蘇板校正古本唐詩鼓吹』(목판본), 『荷衣遺稿』(목판본) 등이다. 이담명이 작성한 장서기가 있는 사례는 <그림 5>와 같으며, 그 내용은 아래의 인용문과 같다.

- (a) 정사년(1677년)에 내가 銓郎(이조정랑)으로 있을 때 상소를 올린 朝紳들의 성명을 기록하여 나의 망각을 대비한다.¹⁵⁾
- (b) 이것은 모두 4책으로 金秋伯(필자주: 金兌一, 1637~1702)이 達城을 맡고 있을 때 인출해 나에게 보낸 것이다. 내가 글씨 잘 쓰는 사람을 구해 그 책의 표제를 쓰려고 하던 차에 하루는 참관 趙威明(1640~1685)이 於義洞 집으로 나를 찾아왔다. 조공은 필명이 있던 자이므로 이 책을 꺼내 제목을 써달라고 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제4책의 제목을 빠뜨리고 미처 쓰지 못했다. 수년 뒤에 벼슬을 그만두고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비로소 알게 되었지만 조공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 두 번째 글씨가 아쉬워 사자관 李益新을 시켜 똑같이 쓰게 하였더니 그가 쓴 글씨의 점획이 흡사 본래의 필적과 서로 같았다. 안목을 갖춘 자가 아무리 자세히 비교하더라도 어느 게 조참관(필자주: 조위명)이 쓴 것이고 어느 게 이익신이 쓴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웠다. 이익신도 글씨를 잘 쓰는 자로, 그가 서첩을 베끼는 데 더욱 뛰어난을 알 수 있겠다.¹⁶⁾
- (c) 임신(1692년) 9월 斯文 洪景濂(1645~1717)이 인출하고 책으로 만들어 보내 온 것이다.¹⁷⁾

(a)는 필사본 『문신좌목』의 앞면지에 기록된 내용으로, 필사하게 된 사유를 적어 筆寫記이자 장서기에 해당된다. 1677년(숙종 3) 정사년 가을

15) 李聘命, 藏書記, 『文臣座目』(석전문고본), “歲丁巳 余忝在銓郎時 疏書朝紳名姓 以補忘者也”

16) 李聘命, 藏書記, 『新刻蘇板校正古本唐詩鼓吹』(석전문고본), “是凡四冊 而金秋伯宰達城時 印送于余 余欲得善寫者題其面 一日趙參判威明 訪余于於義第 趙公卽以筆者者也 出是冊請書題目 而偶遺其第四冊而未書其題矣 其後數年抽秩 考閱而始覺之 而趙公已作泉下人 嫌其二筆 令寫字官李益新 倣而書之 則其揮灑點畫 恰然與本筆相似 具眼者雖諦視之 亦未易辨其某爲趙某爲李 李亦善寫者 而其尤工於臨帖 可知也.”

17) 李聘命, 藏書記, 『荷衣遺稿』(석전문고본), “玄默涖灘菊月洪斯文景濂印粧送來”

에 이담명은 이조정랑[銓郎] 직위에 제수되었는데,¹⁸⁾ 장서기에 본인의 직임과 배수 연도가 기입되어 있어 장서기를 쓴 이가 바로 이담명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이조정랑은 내외 관원을 천거하는 인사권한을 가진 핵심 요직이었고, 이담명은 관원들을 관리하고 천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때문에 상소를 올린 조정 관리들을 기억하고자 조정 관리들의 명부를 필사본으로 제작하였다고 적었다. 따라서 『문신좌목』은 1677년 이담명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수록된 인물 명단과 인물별 내용은 17세기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어 석전문고의 중요 문헌으로서 의미를 갖추고 있다.

(b)의 장서기는 4권4책 목판본인 『신각소판교정고본당시고취』 제4책 권말 면지에 작성된 내용이다. 장서기에서는 크게 네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책의 입수시기와 입수처에 대한 내용이다. 장서기에 의하면, 해당 서책은 김추백, 즉 金兌一(1637~1702)이 달성에 부임하였던 시기에 인출하였다고 한다. 김태일의 본관은 禮安, 자는 秋伯, 호는 蘆洲이다. 숙종 때 병조좌랑을 비롯해 장령과 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1674년(현종 15)에 大丘判官에 임명되어 대구부를 통솔하였고,¹⁹⁾ 이후 1677년(숙종 3)에 병조좌랑에 임명되었다.²⁰⁾ 따라서 장서기가 수록된 해당 서책은 1674년에서 1677년 사이에 대구판관이었던 김태일에 의해 인출되었음을 말해준다.

두 번째는 『신각소판교정고본당시고취』의 표제 글씨를 누가 썼느냐 하는 문제이다. 참판 趙威明(1640~1685)이 한성의 於義洞²¹⁾ 집으로 찾아왔을 때, 조위명에게 제1책부터 제3책의 표제 작성을 부탁하였다고 하였다. 조위명은 숙종조에 도승지와 예조참판을 지낸 문신으로, 본관은 漢陽, 자는 晦汝, 호는 松泉이다. 작은아버지 趙綱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

18) 姜楷, 「行狀」, 『靜齋先生文集』 卷8 附錄. “丁巳…秋拜吏曹正郎兼校書校理”

19) 『승정원일기』 현종 15년 3월 21일 을유.

20) 『승정원일기』 숙종 3년 10월 25일 무진.

21) 於義洞의 지명 유래는 고려시대 刈李洞이라 하던 것을 조선시대 어의동으로 고친 것으로 전해지며, 어의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上於義宮이 있던 현 낙원동 지역과 下於義宮이 있던 효제동 지역 두 곳 모두 한성부에서 어의동으로 불려왔다. (길지혜 외, 2017, 4쪽)

위 문예에 뛰어났고 글씨에 능하였다. 태조의 祔禮를 행할 때 玉冊文書 寫官을 담당했으며,²²⁾ 李肯翊이 뽑은 조선 명필 87인의 명단에도 이름이 오를 정도로 글씨에 뛰어났다.²³⁾ 전체 4책 중 마지막 제4책의 표제는 寫字官 李益新이 썼는데, 조위명 글씨와 동일한 글씨체로 써 줄 것을 부탁하여 표제를 작성하였다. 사자관 이익신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지만, 1673년(현종 14) 선왕인 효종 능의 토석에 틈이 생겨 遷陵할 때 이익신이 誌石을 쓴 경험이 있다. 用筆에 뛰어나다며 지식 글씨를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당시 이름난 명필 중 한 명이었다고 볼 수 있다.²⁴⁾ 현재 이원정 후손가 전래 『신각소판교정고본당시고취』의 표제 글씨는 안타깝게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표지가 닳고 헤어져 당시 조위명과 이익신의 글씨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세 번째는 장서기를 작성한 시기이다. 장서기를 썼던 당시 조위명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에 제4책을 사자관 이익신에게 부탁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조위명이 작고한 1685년 이후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은 장서기를 작성한 작성자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신각소판교정고본당시고취』를 인쇄하여 입수한 시기가 1674~1677년 이고, 장서기를 작성한 시기가 1685년 이후이다. 이원정 후손가 인물 가운데 양쪽 시기에 생존·활동하였던 인물은 이담명이 유일하기에 해당 서책의 장서기는 이담명이 작성한 것이고, 해당 서책은 이담명이 입수·관리하고 독서하였던 장서임을 말해준다.

(c)는 『荷衣遺稿』(不分卷 1冊, 목판본)의 뒷면지에 작성된 장서기이다. 『하의유고』는 洪迪(1549~1591)의 시문집으로 그의 증손 洪景濂(1645~1717)이 金泉察訪으로 부임한 후 1692년 7월에 쓴 자신이 쓴 서문을 넣고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하의유고』는 이후 중단되지 않아 현재 초간본만이 존재하는 문집이다. 국내 기관에는 국립중앙도서관본, 연세대본, 계명대본, 대구가톨릭대본(해당 자료) 정도로 남아있어 흔하지

22) 『승정원일기』 숙종 2년(1676) 10월 25일 갑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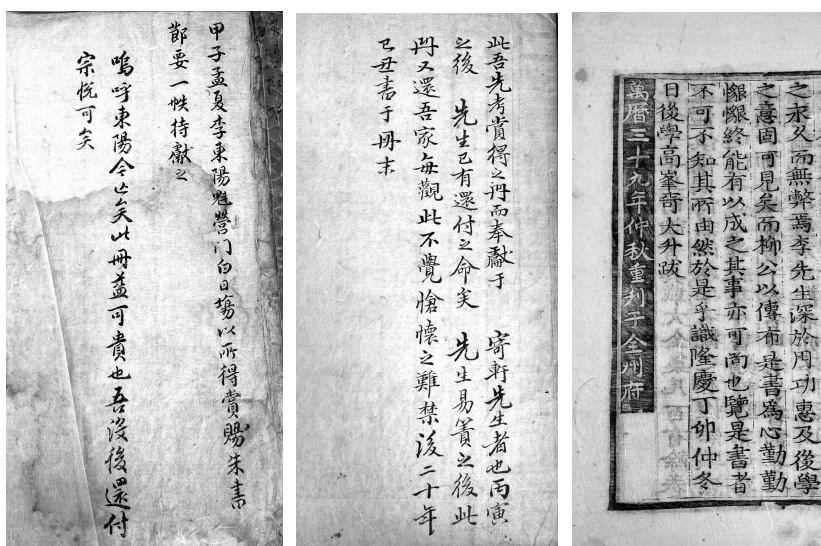
23) 李肯翊, 『燃藜室記述』 別集 권14 文藝典故 「筆法」.

24) 『승정원일기』 현종 14년(1673) 7월 5일 임신.

않은 자료이다. 대구가톨릭대본의 장서기에 의하면 해당 서책은 1692년 임신년 9월 당시 김천찰방이었던 홍경림이 印出·粧冊하여 보내주었다고 기록하였다. 홍경림으로부터 『하의유고』를 받았던 1692년 당시 이담명 나이 47세로 사헌부 대사헌 자리에 있던 시기였으며,²⁵⁾ 이때 해당 서책을 수집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이태운 장서기

그림 6. 이원정 후손가 『주자서절요』 장서기 2건과 간기



(d) 1746~1750년 姜楷 장서기 (제1책 앞면지) (e) 1769년 李泰運 장서기 (제10책 앞면지) (f) 1611년 趙觀物 刊行 간기 (권말)

이상에서 언급한 이원정·이담명 부자의 장서기는 17세기에 작성된 반면, 18세기 작성된 장서기들도 확인된다. 18세기 작성된 대표적인 사례

25) 姜楷, 「行狀」, 『靜齋先生文集』 卷8 附錄, “壬申…八月拜大司憲 十月承召 道病辭遞”

는 ‘만력 39년(1611년) 전주부 중간’의 刊記가 있는 『朱子書節要』(20권 10책, 목판본)이다. 『주자서절요』의 제1책 앞면지에 장서기가 있고, 마지막 책(제10책)의 앞면지에 또 다른 장서기가 수록되어 있어 장서의 내력을 확인할 수 있다.

- (d) 갑자년(1744년) 초여름에 李東陽이 營門 白日場에서 일등을 하였는데, 상으로 받은 朱書節要 한 질을 가지고 와서 바쳤다. 아, 이동양이 지금은 죽고 없으니 이 책이 더욱 귀하다. 내가 죽은 뒤에는 宗悅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옳다.²⁶⁾
- (e) 이것은 나의 선고(필자주: 李東陽)께서 상으로 얻은 책으로 寄軒先生(필자주: 姜楷)에게 바쳤던 것이다. 병인(1746년) 이후에 선생께서 이미 돌려보내라는 명이 있었고, 선생께서 돌아가신 뒤에 이 책이 다시 우리 집에 돌아왔다. 이 책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서글픈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후 20년 기축(1769년)에 책 끝에 쓴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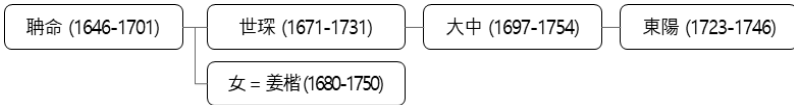
『주자서절요』 제1책에 수록된 장서기 (d)에 의하면, 해당 서책의 원래 주인은 이동양이었다. 이동양은 이담명의 증손자인데, 그가 1744년 22세의 나이로 백일장에서 일등 하게 되어 상으로 『주자서절요』 한 질을 받았고, 이를 스승인 姜楷(1680~1750)에게 선물하였던 것이다. 강해는 본관 晉州, 자 季範, 호 寄軒이며, 1705년 생원시에 합격하여 齊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강해는 이동양의 스승이기도 하지만 이동양 부친의 고모부, 즉 왕고모부이다(그림 7 참조). 하지만 이동양은 안타깝게도 스승 강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당시 이동양 나이 24세인 1746년이었다. 제자를 떠나보낸 강해는 이동양이 선물한 『주자서절요』 첫 번째 책 앞면지에 ‘이동양은 떠났지만 그의 책은 남아있어 더욱 귀한 것’이라고 기록하였으며, 자신이 죽은 이후에는 이동양의 아들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기록하였다. 따라서 해당 장서기의

26) 姜楷, 藏書記, 『朱子書節要』(석진문고본), “甲子孟夏 李東陽魁營門白日場 以所得賞賜朱書節要一帙 持獻之. 嗚呼 東陽今亡矣 此冊益可貴也 吾沒後 還付宗悅 可矣.”

27) 李泰運, 藏書記, 『朱子書節要』(석진문고본), “此吾先考賞得之冊 而奉獻于寄軒先生者也 丙寅之後 先生已有還付之命矣 先生易簣之後 此冊又還吾家 每觀此 不覺愴懷之難禁 後二十年己丑 書于冊末.”

작성시기와 작성자를 살펴보면, 이동양 몰년인 1746년에서 강해가 세상을 떠난 175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며, 스승 강해가 직접 작성한 장서기임을 알 수 있다.

그림 7. 광주이씨와 진주장씨 강해와의 관계



『주자서절요』 마지막 책에 수록된 장서기 (e)는 제10책의 앞면지에 기록되어 있다. 부친 이동양이 백일장에서 상으로 받은 해당 서책을 스승 강해에게 선물하였던 것이며 강해가 1746년 이후에 이동양 후손에게 돌려줄 것을 명하였다 하였고, 강해 사망 이후 광주이씨 집안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하였다. 장서기를 작성한 시기는 1746년에서 20년이 지난 기축년으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1769년에 해당되며,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장서기 (e)를 작성한 인물은 이동양의 아들 이태운이다. 따라서 2건의 장서기는 『주자서절요』의 전달 과정과 소장 경위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담겨있어 광주이씨 장서 역사에 중요한 기록에 해당된다.

IV. 이원정가 인물별 장서관리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장서인·장서기 분석 및 가전 장서목록 등을 통해 이원정가 인물별 장서관리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원정의 적극적 장서관리와 장서인 애호

석전문고 746종(2,918책) 가운데 이원정의 성명이 들어간 A1(李元禎

甫), A2(元禎士徵), A3(李元禎氏)의 장서인이 포함되어 날인된 경우는 94종이며, 이 경우는 이원정의 장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원정의 성명인은 날인되지 않았지만 이원정을 지칭하는 D2(三世翰苑)와 같은 자칭인이 날인된 사례 6종, 이원정이 작성한 장서기 수록 서책 1종을 포함하면 이원정 장서로 파악되는 서책은 101종이다. 종수 기준으로 이원정 후손가 석전문고 전체 장서 가운데 13.5%가 이원정의 것으로 확인된다. 이원정 장서를 이와 같이 파악하고 확인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그의 장서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원정은 1670년 이전 자신의 장서목록을 작성하였는데, 해당 장서목록이 계명대 소장본으로 현존하고 있고, 그의 장서목록을 분석한 결과 276종(1,562책)을 소장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²⁸⁾ 그렇다면 17세기 이원정 장서 276종 가운데 101종, 즉 36.6%의 장서가 대구가톨릭대 석전문고에 소장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이원정의 경우에는 자신이 작성한 장서목록이 현재 남아있고, 그의 장서 중 1/3 이상이 석전문고에 남아있어 개인의 장서문화사에 관한 연구를 가능케 한다.

이원정은 다양한 형태의 장서인을 소장하고 있었다. 만일 자신의 서책에 날인하기를 좋아했다면 석전문고 이외의 기관·개인 소장본 가운데 이원정 장서를 찾는 일이 보다 쉽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그의 장서인 날인과 장서목록 작성 등의 장서관리 습관으로 인해 타기관으로 흩어진 이원정 소장본을 찾고 그의 장서를 복원하는 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서인을 통해 타기관 소장본 가운데 이원정 장서를 일부 찾을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고려대 소장본으로 그의 장서인이 날인된 서책 6종을 확인할 수 있었다. 『戊子式年司馬榜目』(목판본), 『句解南華眞經』(목판본), 『崎庵集』(초간 목판본), 『吏文』(목판본), 『牧隱集』(중간 목판본) 등이다. 고려대 소장본의 이원정 장서인 종류는 A2(元禎士徵), B2(廣州李氏), D1(戊子司馬壬辰亞元), E1(剛明), E2(虛受) 등 5개가 주를 이루고, 이외에 A1(李元禎甫), B1(廣陵後人), C2(貴岳), D2(三世翰苑) 등이 드물

28) 손계영, 앞의 논문, 58~59쪽.

게 날인되었다.²⁹⁾

두 번째는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본 가운데 이원정 장서가 확인되는 데, 이는 이원정 장서인과 내사기가 있는 내사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원정의 필사본인 『私稿』와 『雜稿』에는 장서인 A1(李元禎甫)와 B1(廣陵後人)이 날인되어 있어 이원정 장서임을 알 수 있다.³⁰⁾ 또한 계명대에는 1672년 공조참판 이원정에게 하사한 『心經附註』와 1680년 이조판서 이원정에게 하사한 『列聖御製』 등 이원정 내사본을 통해 그의 장서를 찾을 수 있다.³¹⁾ 세 번째는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이다. 2002년 광주이씨 이원정 후손가 고문헌 2,716건이 서울역사박물관에 기증되었고, 그 중 서책류 185건이 포함되어 있다. 기증된 서책류에는 이원정 장서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원정 내사본 1종이 포함되어 있다.³²⁾ 『警民編』은 1661년 동래부사 이원정에게 내사한다는 내사기를 통해 이원정 장서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원정은 10여개의 장서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장서를 관리하고 있었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이원정 장서인의 시기적 변화

이원정 장서인 14종 가운데 특정 장서인은 특정 시기에 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유추되며, 기본적으로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원정이 초창기에 장서인을 날인하던 방식으로 A1(李元禎

29) 고려대본 이원정 장서인 내용은 구자훈의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구자훈, 『조선 조의 장서인·장서가 연구: 고려대학교 소장본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254~259쪽.

30) 계명대본 『私稿』(A159838)에는 A1(李元禎甫)와 B1(廣陵後人), 『雜稿』(A159849)에는 A1(李元禎甫)가 날인되어 있다.

31) 김영진, 앞의 논문, 2020, 496쪽.

32) 서울역사박물관, 『기증유물목록XI -광주이씨편』,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13, 344~373쪽. ; 서울역사박물관, 『조선의 명가 不屈과恤民의政治, 광주이씨』,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07, 92쪽.

甫)만 사용하였던 예이다(표 13의 가). A1 하나만을 사용하여 날인한 경우 그 위치가 권두 첫 면의 상단 광곽선 바깥으로 날인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상단 광곽선 바깥에 위치한 사례가 10종의 서책에서 확인되며, 광곽 안쪽 우측하단에 날인된 경우도 4건 확인된다. 두 번째는 (가)에서 변화된 방식으로, 광곽 안쪽 우측하단에 A1(李元禎甫)과 B1(廣陵後人)을 동시에 찍는 방식이다(표 13의 나). 크기가 큰 성명인을 아래에 먼저 찍고, 그 위에 보다 작은 관향인을 찍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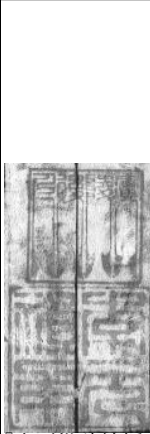



(가)	(나)	(다)	(라)	(마)
				
『司馬法直解』 [李元禎甫] (14종)	『高靈世稿續編』 [廣陵後人] + [李元禎甫] (31종)	『秘笈新書』 [剛明]+ [廣陵後人] + [李元禎甫] (10종)	『遲川先生集』 [剛明]+ [廣州李氏] + [元禎士徵] (23종)	『馬史』 [剛明]+ [廣州李氏] + [元禎士徵] (10종)

표 13. 이원정 장서인 날인의 기본 방식 5단계

세 번째는 기존에 날인된 A1(李元禎甫)·B1(廣陵後人)에 E1(剛明)을 추가로 날인하거나 A1(李元禎甫)·B1(廣陵後人)·E1(剛明)을 동시에 나란히 날인한 방식으로, 이때부터 술모양의 鼎形印 사용이 시작된 단계이다(표 13의 다). 전자의 추가 날인의 경우에는 A1·B1의 인주색과 E1(剛明)의 인주색에 차이가 있어 날인 선후를 유추할 수 있고, 후자의 동시

날인 경우에는 A1·B1·E1 인주색과 상태가 동일하기에 한번에 날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부터는 이원정이 새로운 성명인과 관향인을 바꿔 사용한 시기이다. 새로 바꾼 A2(元禎士徵)·B2(廣州李氏)와 세 번째 단계부터 사용하였던 E1(剛明)을 동시에 나란히 날인하였다(표 13의 라). 새로 사용한 A2와 B2는 정방형에 양각, 동일한 字體로 새겼다는 점에서 한 짝으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한 사람이 새긴 장서인으로 추측된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전과 동일한 성명인과 관향인에 새로운 정형인을 사용한 방식으로 A2(元禎士徵)·B2(廣州李氏)와 E2(虛受)를 나란히 날인하였다(표 13의 마). 이와 같은 다섯 단계는 가장 기본적인 날인 방식이며, 경우에 따라 일부 장서인이 빠지거나 C1(歸岳居士), D1(戊子司馬壬辰亞元), D2(三世翰苑), E3(敬發深省), E4(一食不忘君恩) 등이 추가되는 변형의 방식으로 날인되었다.

표 14. 이원정 장서인이 날인된 내사본 현황 및 장서인 종류

서명	내사 연도 및 피반사인	A1	B1	A2	B2	E1	E4	D2	D1	E3
		李元 禎甫	廣陵 後人	元禎 士徵	廣州 李氏	剛明	一飯不 忘君恩	三世 翰苑	戊子司馬 壬辰亞元	敬發 深省
春秋經傳集解	1611 이운우	○	○							
四聲通解	1656 이원정	○	○							
書傳大全	1658 이원정		○		○	○	○	○		
龍飛御天歌	1659 이원정			○	○	○	○	○	○	
周易諺解	1670 이원정	○					○			
論語或問	1678 이원정		○		○	○	○	○		
歷代臣鑑	1678 이원정				○		○	○		○
歷代臣鑑	1678 이담명				○		○	○		○
排字禮部韻略	1678 이담명				○	○	○	○		

다섯 단계 중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성명인과 관향인으로 바꿔 사용한 (다)에서 (라)의 변화이다. 이원정이 새로운 장서인 A2(元禎士徵)·B2(廣州李氏)를 바꿔 사용한 시기는 언제일까? 이를 유추하기 위해 이

원정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고 내사기가 남아있는 이원정가 내사본 9종을 살펴보았다. 이원정가 내사본 중 이원정 장서인이 날인된 사례로는 1611년 이운우 내사본 1종, 1656년부터 1678년에 하사받은 이원정 내사본 6종, 1678년 이담명 내사본 2종이다. 내사된 시기에 따라 날인된 장서인을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표 15. 이원정 내사본의 장서인 변화

1656년 내사본 『사성통해』		
		<p>*권두 : [廣陵後人] [李元禎甫]</p>
1659년 내사본 『용비어천가』		
		<p>*권두 : [剛明] [廣州李氏] [元禎士徵]</p> <p>*권말 : [戊子司馬壬辰亞元] [三世翰苑] [一飯不忘君恩]</p>

이원정 장서인이 날인된 내사본 9종을 통해 장서인 종류와 날인 시기와 관련성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A1(李元禎甫)와 B1(廣陵後人)을 같이 날인하였던 <표 13>의 (나)방식에

서 A2(元禎士徵)·B2(廣州李氏)·E1(剛明)을 날인하는 (라)방식으로 변화하였던 시기가 1656년에서 1659년 사이라는 점이다. 조부 이윤우가 1611년에 내사받은 『春秋經傳集解』와 이원정이 1656년에 내사받은 『四聲通解』의 경우에는 (나)방식의 A1·B1가 날인되었으나(표 15의 상), 1658년 내사본 『書傳大全』부터는 B2(廣州李氏), D2(三世翰苑), E4(一食不忘君恩), E1(剛明) 등 4종의 장서인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1659년 내사받은 『龍飛御天歌』에서는 권두 첫면에 (라)방식의 A2·B2·E1을 짝으로 날인하였고, 권말 마지막면에는 D1·D2·E4를 나란히 날인하였다(표 15의 하).

두 번째는 1656년에서 1658년 사이에 D2와 E4 장서인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D2(三世翰苑)는 조부 이윤우, 부친 이도장, 자신 이원정 3대가 한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장서인인데, 이 장서인은 이원정이 예문관 검열이 되었던 1656년 가을 이후에 제작되었을 것이고, 내사본 분석결과 1658년 내사본부터 날인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원정 장서 100종 가운데 D2가 날인된 시기는 1656년 가을 이후임을 말해준다.

1656~1658년 사이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던 또 다른 장서인인 E4(一食不忘君恩)의 경우는 내사본 이외에 날인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임금이 하사한 내사본에 “밥 한끼 먹을 때에도 (내사본을 하사한) 임금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는 그의 충정심을 표현한 장서인이라 할 수 있다. 석전문고 가운데 내사기와 내사인이 있는 제1책이 없어 내사본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해당 장서인이 날인된 이원정 장서가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656년에 간행된 목활자본 『增補萬病回春』이다. 현재 첫 번째 책은 없고 제3·5·6·7책 총4책만 남아있는 결본이지만, 4책 모두 권두 첫면에 A2(元禎士徵)·B2(廣州李氏)·E4(一食不忘君恩)가 날인되어 있어 이원정의 내사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세 번째는 1678년 내사본에는 이원정 성명인이 날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때부터 자신의 이름이 직접 들어간 성명인 사용을 자제하였고, B2(廣州李氏)·E1(剛明)·E4(一食不忘君恩)·D2(三世翰苑)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그 가운데 D2(三世翰苑)는 3대째 한원에 있었던 이원정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원정 장서임을 충분히 표현한 것이지만, 1678년 내사본 모두 성명인이 날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문이 생긴다. 또한 석전문고에는 이원정 내사본임에도 장서인이 전혀 날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朴通事諺解』(1677년 내사본), 『新刊仁齋直指方論醫脉眞經』(1678년 내사본), 『歷代君鑑』(1678년 내사본) 등 3종이다.

그 이유를 유추하기 위해 해당 시기 사회적 상황과 이원정 행력을 살펴해보았다. 1674년 8월 현종이 승하하고 어린 숙종이 즉위하였다. 숙종 즉위 후 이원정은 형조판서 물망에 올랐으나 1675년 2월 모친상으로 나설 수 없었고, 1677년 봄부터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뛰어들었다. 1677년 6월 대사헌·도승지, 9월 예조참판, 10월 형조판서가 되었고, 1678년 4월에는 청나라 사신 영접을 위해 遠接使로 의주에, 5월에는 사신 배웅을 위해 伴送使로 西關을 다녀왔다. 그해 7월에 판윤 겸 총관, 12월에 호조판서가 되었다. 또한 이때는 남인과 서인의 상호 공세가 끊임없이 이어졌던 시기이고 경신환국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이원정은 그 중앙 선봉에 서있던 인물이다.

이 시기 아들 이담명도 본격적인 관직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이원정이 정치적 활동으로 너무도 바빴던 시기였기에 이담명이 부친의 내사본을 관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근거로는 1678년 이담명이 하사받은 내사본 『歷代臣鑑』과 『排字禮部韻略』의 경우 1678년 이원정 내사본과 동일한 방식으로 날인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한 사람에게 의해 장서인이 날인되었음을 의미하며, 시기적으로 이원정의 사회적·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이담명이 장서관리 하였음을 말한다. 같은 시기에 하사받은 이원정·이담명의 내사본에 동일한 방식으로 장서인을 날인한 인물이 이담명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원정의 성명인이 날인되지 않은 이유라고 판단된다.

3. 이담명의 장서인 사용 절제



그림 8. 1670년(경술) 이담명 책력 앞면지(우)와 뒷면지(중), 이담명 장서인(좌)

석전문고에서 이담명의 장서인은 『經史集說』(15권7책, 목활자본)에서만 확인되며, 그의 1670년 책력에서도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그림 8의 左 상단). 『경사집설』에는 이원정이 사용하였던 관향인 B1(廣陵後人)과 이담명의 성명인 F(李聘命印)이 날인되어 있어 이담명이 이원정의 관향인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담명의 성명인 F는 허목의 古篆體인 眉篆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이담명이 20세인 1665년에 漣川으로 眉叟 許穆(1595~1682)을 찾아간 이후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³³⁾ 이담명이 25세이던 1670년에 사용하였던 그의 책력이 현재 대구가톨릭대 석전문고에 전하는데, 해당 책력의 앞면지와 뒷면지에 미수 허목이 직접 쓴 것으로 추정되는 미수전의 시가 있고(그림 8의 右·中), 첫 면의 하단에는 이담명의 성명인 F가 날인되어 있다(그림 8의 左 하단).³⁴⁾ 앞뒤 면지에 미수

33) 李懿秀, 「家狀」, 『靜齋集』 卷8(附錄), “弱冠謁眉叟許先生於漣川 聞君子之學 自是常往來受業焉”

34) 1670년 새해에 해당 경술년 책력과 허목이 새긴 장서인을 미수 허목에게 하사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연도인 1670년 11월에 이담명이 문과에

전으로 작성된 시는 『詩經』 商頌의 「長發」인 것으로 확인되며, 포악한 군주를 물리친 武王의 공덕을 칭송한 시이다.³⁵⁾ 1670년 책력 앞면지에 작성된 미수체 전서와 이담명 장서인 전서가 같은 글씨체인 점, 이원정 장서인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글씨체인 점 등으로 볼 때 이담명 장서인은 스승 허목에게 받은 글씨를 새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현재 이담명 장서인이 있는 2종의 서책에는 언제쯤 그의 장서인이 날인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1670년 책력의 경우에는 1년 단위의 다이어리에 해당되는 자료의 특성상 1670년 새해 전후에 입수하여 그 직후에 날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사집설』의 경우에도 전자의 사례와 유사한 시기인 1670년에 장서인을 날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이원정·이담명의 장서목록인 『完府措備書冊』(계명대본)의 네 번째 항목인 「庚戌措備書冊」 항목에는 경술년인 1670년에 수집된 서책 항목에 ‘經史集說 七卷’이라 표기하였으므로 1670년에 수집한 이후 장서인을 날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³⁶⁾ 따라서 이담명 장서인이 있는 현존본 2종은 모두 1670년 전후에 날인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담명은 자신의 장서에 장서인을 찍는 행위를 즐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부친 이원정의 성명인이 날인된 서책이 94종인 점에 비해 이담명 장서인이 날인된 서책은 단 2종뿐이라는 점이며, 또 다른 이유는 석전문고에 소장된 이담명 내사본 11종 가운데 이담명 장서인(성명인)이 날인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이다(표 16 참조).

급제하였다는 점에서 1670년 책력 자료는 이담명에게 상당히 중요한 자료였음이 분명하다.

35) 앞면지에는 『詩經』 商頌의 「長發」시의 제6장에 해당되는 “武王載旆 有虔秉鉞 如火烈烈 則莫我敢遏 苞有三蘖 莫遂莫達 九有有”를 적었다. 뒷면지에는 앞면지의 내용에 이어 「장발」 시의 뒷부분 “截 韋顧既伐 昆吾夏桀”를 적었으며, 뒷면지 남은 여백에는 「장발」 시 제7장의 앞부분인 “昔在中葉 有震且業 允也天子 降于卿士 實維”를 적어넣었다.

36) 李聘命, 『完府措備書冊』, 「庚戌措備書冊」, “經史集說 二件 一件五卷, 一件七卷, 此五卷者 一卷失”

	서명	내사연도	장서인 날인 유무
1	論語集註大全	1675년	장서인 없음
2	新刊仁齋直指方論	1675년	장서인 없음
3	老乞大諺解	1675년	장서인 없음
4	醫林撮要	1676년	장서인 없음
5	朴通事諺解	1677년	장서인 없음
6	歷代臣鑑	1678년	廣州李氏(B2), 一食不忘君恩(E4), 三世翰苑(D2), 敬發深省(E3)
7	排字禮部韻略	1678년	廣州李氏(B2), 一食不忘君恩(E4), 三世翰苑(D2), 剛明(E1)
8	大學衍義	1689년	장서인 없음
9	史記	1689년	장서인 없음
10	漢書	1691년	장서인 없음
11	列聖御製	1691년	장서인 없음

표 16. 대구가톨릭대 석전문고 소장 이담명 내사본의 장서인 날인 유무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담명 내사본 11종 가운데 장서인이 있는 경우는 1678년에 하사받은 『歷代臣鑑』과 『排字禮部韻略』 2종이 있지만, 이는 이담명의 성명인(F)이 아니라 ‘광주이씨’가 새겨진 관향인(B2)과 이원정의 자칭인(D2) 또는 자경인(E1·E3·E4)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서인이 있는 사례가 1678년 내사본에서만 확인된다는 점과 이원정 성명이 직접 들어간 장서인이 없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한데, 이는 앞서 상세히 서술한 바와 같이 1678년부터 이담명이 이원정과 자신의 장서를 함께 관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표 14 참조).

이원정·이담명 장서목록 『완부조비서책』의 제4항목인 「경술조비서책」의 서책목록에 의하면 이담명은 1670년에 54종 384권의 서책을 수집하였다. 또한 제5~6항목인 「己巳後內賜冊」과 「己巳後措備冊」을 살펴보면, 1689년 기사환국 이후 이담명은 35종 390책이 수집하였다. 하지만 그는 『경사집설』과 1670년 책력 이외에는 자신의 장서인을 날인하지 않았다. 다만 <그림 5>와 같이 책의 제작·입수 경로나 표제 글씨 등과 관련

된 내역을 책 표지 안쪽의 면지에 기록하였고, 『완부조비서책』과 같이 소장 장서의 전체 목록을 기록하고 제작하여 자신의 장서를 관리하였다. 해당 장서목록에는 전체 장서점검을 하였던 표식이 있는데, ‘參判宅’, ‘단성 권생원 숙주(權斗望, 이담명 고모부)가 빌려감[丹城 權生員 叔主 借去]’ 등과 같이 현재 누가 빌려 갔는지를 기록하였고, ‘15권 중 7권 분실되고 8권 남았음[十五卷 失七卷 存八卷]’, ‘1권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다[一卷破不用]’ 등과 같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책을 점검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담명은 장서인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며 절제하는 한편, 현존본의 장서기와 장서목록을 통해 부친의 장서를 기반으로 자신이 수집한 장서를 집적하는 방식으로 장서관리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이태운·이이풍·이조연 삼대의 장서 재정리

이담명의 현손 이태운은 <표 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종 이상의 장서인을 소장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태운이 자신의 장서인을 낱인한 경우로는 『木齋先生文集』, 『旅軒先生年譜』, 『左氏輯選』 등이 있으며, 그의 장서기가 있는 사례로는 <그림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자서절요』가 확인된다.

계명대 동산도서관에는 광주이씨 이원정가 전래 장서목록으로 확인되는 자료 3종이 소장되어 있다. 첫 번째 자료인 『광주이씨서책치부』는 1670년 이전에 이원정이 작성한 장서목록이고, 두 번째 『완부조비서책』은 1670년 이후 이원정이 아들 이담명에게 자신의 장서와 장서관리 권한을 넘기며 이담명이 작성한 장서목록이다. 세 번째 장서목록인 『補忘錄』은 현재까지 누구의 장서목록인지 밝혀지지 않았는데(그림 10 참조), 해당 장서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록된 서책 종수가 279종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광주이씨 가진 장서목록 『보망록』 (계명대본)

그 가운데 이태운 장서인·장서기가 있는 석전문고본이 있는지 살펴보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태운 장서기가 있는 『주자서절요』는 장서목록 『보망록』에 ‘朱書節要 二件’으로 표기하였다. 이태운 장서인이 있는 현존본으로는 『여헌선생연보』(3권1책)의 경우 장서목록에 ‘旅軒集 無, 年譜 一卷別有’로 표기하였고, 『목재선생문집』은 ‘木齋集’으로, 『좌씨집선』은 ‘左氏輯選’으로 표기하였다. 그렇다면 해당 장서목록은 이태운 당대 또는 그 후대에 작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보망록』의 앞부분은 이와 같이 집안 소장본 279종에 대한 리스트와 장서현황 등을 기록하였고, 뒷부분에는 광주이씨 집안의 직계 世系를 기록하였다. 가장 마지막 부분에 ‘李泰運 學生’이란 표기와 함께 李以豐(1768~1827), 李肇淵(1811~1884), 李相奭(1835~1921) 등의 혼인 관계를 수록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당시 이태운은 세상을 떠난 상황이고, 이이풍·이조연·이상석 등이 활동하였던 시기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해당 장서목록은 이이풍과 이조연 부자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담명의 현손 이태운은 5종의 장서인을 소장하였을 만큼 집안 장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아들과 손자인 이이풍·이조연 부자는 장서목록 『보망록』을 작성하여 장서대출과 장

서점검 현황 등을 기록할 정도로 장서 파악과 장서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이 연구는 이원정 후손가 장서 가운데 장서인 또는 장서기가 수록된 장서 136종을 대상으로 장서인·장서기의 내용과 책주를 분석하였다. 이원정 후손가 석전문고 746종 가운데 종수 기준으로 약 18%에 해당되는 장서에 조선시대 장서인이 날인되었거나 장서기가 작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장서인을 분석하여 책주 11인을 찾을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많은 장서인을 소장하고 가장 많은 서책에 날인하였던 장서인은 이원정의 것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는 14종 이상의 장서인을 소장하였고, 장서인이 있는 121종 가운데 101종에서 이원정의 장서인과 장서기가 확인되었다. 1670년 이전 자신의 장서목록에 수록한 장서량이 276종(1,562책)인 것과 비교하면 대구가톨릭대 석전문고에는 17세기 이원정이 소장하였던 장서의 약 37%(101종)가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그는 자신의 장서 대부분에 장서인 1종부터 최대 6종까지 날인할 정도로 장서인 사용을 애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656년부터 1678년 사이에 작성된 내사기가 남아있는 이원정 내사본 6종을 통해 이원정이 시기에 따라 사용하였던 장서인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기별 장서인을 근거로 서책별 이원정의 소장 시기를 유추할 수 있게 되었다.

이원정의 장남인 이담명의 경우에는 장서인의 날인보다는 서책의 빈 공간 면지에 장서기를 작성하여 입수경위 등을 기록하였고, 부친의 장서관리를 위해 장서목록을 작성하는 등 장서관리에 적극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광주이씨 이원정가 중요 서책들은 장서인과 장서기를 통해 17세기 이원정·이담명 부자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에는 이원정의 5세손 이태운에 의해 장서관리가 이루어

졌다. 그는 5종 이상의 장서인을 소장하였고, 그의 아들과 손자인 이이풍·이조연은 『보망록』이란 장서목록을 작성하여 집안의 전체 장서 점검과 대출 현황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18·19세기에는 이태운·이이풍·이조연 3대에 걸쳐 집안 장서를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었다. 선조 때부터 형성되어온 장서가 집안을 지탱해온 정신적 유물이자 가학의 바탕을 이룬 보고라는 인식이 후대에 걸쳐 다양한 노력으로 발현되었던 것이다.

※ 이 논문은 2024년 05월 26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05월 27일부터 06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06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權攄, 『習齋先生詩集』, 대구가톨릭대본.
- 李肯翊, 『燃藜室記述』, 한국고전종합DB (db.itkc.or.kr).
- 李聘命, 『完府措備書冊』, 계명대본.
- 李聘命, 『靜齋先生文集』, 한국고전종합DB (db.itkc.or.kr).
- 李道長, 『洛村集』, 한국고전종합DB (db.itkc.or.kr).
- 李元禎, 『廣州李氏書冊目錄』, 계명대본.
- 李元禎, 『歸巖集』, 한국고전종합DB (db.itkc.or.kr).
- 李潤雨, 『石潭集』, 한국고전종합DB (db.itkc.or.kr).
- 李珥, 『栗谷全書』, 한국고전종합DB (db.itkc.or.kr).
- 李玄逸, 『葛庵集』, 한국고전종합DB (db.itkc.or.kr).
- 趙持謙, 『迂齋集』, 한국고전종합DB (db.itkc.or.kr).
- 『承政院日記』, 승정원일기 (sjw.history.go.kr).
- 『朝鮮王朝實錄』,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
- 강병수 외, 『서울지명사전』, 서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9.
- 구자훈, 「朝鮮朝의 藏書印·藏書家 研究 -고려대학교 소장본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길지혜 외, 「한성부 東村 於義洞池 일대의 환경 특성과 장소적 의미」,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5-2, 한국전통조경학회, 2017, 1~14쪽.
- 김영진, 「조선후기 私家 藏書目錄에 대한 일고 -심억·심제현, 이원정·이담명의 목록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77, 한국한문학회, 2020, 469~506쪽.
-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석전문고 목록』, 경산: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2014.
- 박인호, 『영남 남인의 정치 중심 돌발, 칠곡 귀암 이원정 종가』, 서울: 예문서원, 2015.
- 박철상, 「조선후기 문인들의 印章에 대한 인식의 일면」, 『한문교육연구』 35,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 215~243쪽.

- 서울역사박물관, 『기증유물목록XI -광주이씨편』,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13.
- 서울역사박물관, 『조선의 명가 不屈과 恤民의 政治, 광주이씨』,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07.
- 성인근, 「16-17세기 안동김씨 印風의 형성과 전개」, 『서예학연구』 39, 한국서예학회, 2021, 119~147쪽.
- 손계영, 「17세기 李元禎(1622-1680)의 장서목록과 장서구성」, 『서지학연구』 88, 한국서지학회, 2021, 49~77쪽.
- 손계영, 「藏書印을 통해 본 同春堂 後孫家의 장서 형성 배경」, 『고문서연구』 34, 한국고문서학회, 2009, 1~29쪽.

Abstract

A Study on the Book Ownership Stamps and Notes of Lee Won-jeong Family's Library Collection

Son, Ke-young

This study analyzed the book ownership stamps and notes of Lee Won-jeong family's library collection. Among the 746 books in the Lee Won-jeong family's library collection, 136 books have ownership stamps and notes, which allows us to identify who and when owned the book.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e Won-jeong family's library collection is centered around Lee Won-jeong's books from the 17th century. Lee Won-jeong owned more than 14 kinds of book ownership stamp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101 books with Lee Won-jeong's ownership stamps and notes. Compared to the number of books included in Lee Won-jeong's library catalogue of the 17th century, approximately 37% of Lee Won-jeong's books are preserved in the Seog·Jeon collection. He was such a stamp enthusiast that he put his stamp on most of his books. Second, through six Naesabon(book bestowed by the king) of Lee Won-jeong from 1656 to 1678, we were able to confirm the types of his stamps according to the period. Depending on the type of stamp, it was possible to infer the period when Lee Won-jeong owned the book. Third, Lee Won-jeong's eldest son, Lee Dam-myeong, wrote down the details of his acquisition in the blank space of the book rather than stamping it. He compiled a library catalogue and took an active role in managing his father's collection. Lee Won-jeong family's library collection can be confirmed to have been created by Lee Won-jeong and Lee

Dam-myeong in the 17th century through book ownership stamps and notes. Fourth, in the 18th century, Lee Tae-un, a descendant of Lee Dam-myeong, owned more than five types of book ownership stamps. His son Lee I-pung and grandson Lee Jo-yeon compiled their own library catalogue and recorded the status of the family's library collection inspection and book lending. Their efforts to manage the family's library collection continued for three generations until the 19th century.

keywords :

Book Ownership Stamps, Book Ownership Notes, Gwangju Lee's Family, Library Collection, Lee Won-jeong(1622~1680), Lee Dam-myeong(1646~1701), Lee Tae-un(1744~1789)